<캡스톤 디자인-연구계획서>

ESG경영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주가수익비율(PER)과 토빈의 큐(TQ)를 중심으로

홍승연, 김예린, 조정빈, 최지웅

2000년대 이후 기업경영환경은 급변해왔다.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갔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큰 중요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이란 기업이 향후에 존속하여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다.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유지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리하에서 총매출액이나 순이익등의 기업의 재무적 정보들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제1요인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연구처럼 재무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비재무적 정보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기업의 성과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arroll(1999)에 의해 4가지 단계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설명되었는데 1.경제적책임 2.법적책임 3.윤리적책임 4.인도적책임 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기업에게 경제적 책임과 법적책임만을 강조했던 반면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인도적 책임을 기업이 고려해야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과거엔 환경적, 사회적 요소들이 윤리적 책임으로써 존재했다면 최근 들어 법적 책임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요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용어로 출현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용어로 2002년 글로벌 금융회사 모임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같은 년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으로써 정립되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들도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는 환경(E)를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문구를 넣기도 하였다. 이렇듯 ESG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날,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의 규범으로써 받아들여야 하는 생존수칙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ESG경영 정의

ESG[1]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구체적으로 E(Environment, 환경)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삼림 벌채,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물 부족 등이 있고, S(Social, 사회)는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기준 등이 있으며 G(Governance, 지배구조)에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임원 보상, 정치 기부금, 내부 고발자 제도 등이 있다.

ESG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한 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ESG 경영](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25562) (한경 경제용어사전)

+어떤 기업들이 ESG에 참여하고있는지 예시

1. E(Environment) 분야

주요 IT 기업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환경 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다른 사업들과 합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한다. 이미 10억 달러의 ‘기후 혁신 펀드(Climate Innovation Fund)’를 조성해 향후 4년간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라는 개념도 들고나왔다. ‘탄소 중립(Carbon Neutral)’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량을 늘리자는 것. 이와 관련해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배출량보다 더 늘린 후, 2050년까지 창사 이래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내걸었다. 2012년 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 바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는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MS는 최근 미국의 한 농업협동조합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농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협업을 시작했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토양에 흡수되도록 하고, 그 가치에 환금성을 부여해 농가 부수입으로 만드는 [1]BECCs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마존(Amazon) 제프 베조스(Jeff Bezos) CEO는 주주 서한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후협약을 최초로 서명한 회사로,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배송용 차량 1만 대를 전기차로 바꾸고, 2030년까지는 총 10만 대를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24년까지 80%, 2030년까지는 100%로 각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포장재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8년 ECO Vision 2022(ECO: Environmental & Clean Operation)를 선언하고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데 이어, 적극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녹색 경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

IT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전략은 보여졌다. GS칼텍스와 아모레퍼시픽은 플라스틱 공병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친환경(E) 역량강화에 임하고 있다. 매년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공병 100톤을 친환경 복합수지로 재활용하여 다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적용 비율은 2021년 20%에서 2025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도 친환경 선박 및 건조기술 개발, 친환경 설비 구축에 힘써 향후 5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저탄소 트렌드에 따라 수소, 암모니아 등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십과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듯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기업들의 경영전략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 BECCs(Bio 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직접적인 공기 탄소 포집·저장(DACCS, Direct Air Capture with Carbon Storage) 기술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회수하는 대표 기술.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음.

2. S(Social) 분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일은 ESG 중에서도 사회 분야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 19가 일으킨 시장과 사회 변화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더 높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노동권, 젠더 이슈 등 공급망을 포함한 조직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신경 쓰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사회와 얼마나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 코로나 19 팬데믹이 일상이 된 이후에는 주로 종업원의 감염 리스크를 포함한 구성원 건강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종업원 입장에서 해고나 수익 감소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등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 철학이 이 분야의 관심 사례가 되고 있다.

사업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사회 분야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분쟁지역 등 의심스러운 곳을 피해 책임 있게 조달되고 있음을 홍보 중인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020년 IBD ESG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ESG 경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기업,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들을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어도비의 기술은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설립된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를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Adobe Creative Cloud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확인, 위치추적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실종 아이들에 관한 세부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일,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아이들의 이미지를 연령대에 맞게 변형하는 일,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도비는 양성평등 고용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어도비에서 발표한 리뷰에 따르면, 어도비의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 고용자 수는 2016년 4463명에서, 2020년 7484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에는, 소수집단(흑인 아프리카계/라틴 아메리카계 미국인, 북미 원주민 등) 비소수집단 간의 임금 평등을 달성했다고 한다. 어도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승진과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역시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기회 평등(opportunity parity)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금융 산업에서도 나타났다. KB금융은 양성평등 증진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기업에 3년간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다. ESG위원회를 통해 양성평등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성역량강화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여성 인재 맞춤 교육과 여성 인재 중용을 통한 사회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3. G(Governance) 분야

마지막 지배구조 분야는 IT업계의 강점이자 약점이 되기도 하는 영역이다. 고성장 분야인 만큼 창업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지만, 대내외 경영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이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2018년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해 1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도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성을 충족하는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BLM(Back Live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으로, 다양성은 성별에서 인종 관점으로도 확산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유리천장을 뚫는 여성 고위 임원이 여럿 탄생했다. 시티그룹은 월가에서 최초로 여성인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가 시티은행장을 차기 CEO로 지명했고, MSNBC는 케이블 뉴스 업계에서 처음으로 흑인 여성인 러시다 존스(Rashida Jones)를 차기 회장에 선임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첫 여성 단장이 탄생했다. 중국계 미국인인 킴응(Kimberly J. Ng)은 메이저리그 수석부사장으로 여성이자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마이애미 말린스(Miami Marlins) 단장에 올랐다.

미국 나스닥(NASDAQ)은 1명의 여성 이사와 1명의 성소수자(LGBTQ)15) 등 다양성을 상징하는 이사를 상장 기업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새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경우 3,300여 개에 달하는 상장기업에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8월부터 ‘여성이사쿼터제’를 운영하여 이사 중 1명 이상을 다른 성별로 선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IT 기업 구직자 역시 회사의 이사회 구성을 관심 갖고 보는 분위기로,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은 인재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사회 총원의 3분의 2인 6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금융, 회계, 반도체 기술, 법률, 사회정책,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사외이사 중 여성 인력도 포진시켰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효율적인 ESG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과 결과를 검토하는 ‘지속경영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준법경영활동을 감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부여했다. 올해부터는 중장기 ESG 경영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CEO가 직접 주관하는 월 단위 회의체인 ‘ESG경영위원회’도 신설했다.

국내 ESG 평가 모형

국내에도 해외와 같이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평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ESG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ESG 평가 데이터는 그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설립되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주로 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해왔으나 2011년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의 평가도 추가하여 현재의 ESG 평가 모형을 완성하여 지금까지 900여개의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KCGS의 평가모형은

선행연구

본 문헌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가에 대해서 분석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홍성태, 안치용, 이한석(2012)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명성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은 ERISS에서 기업 지속가능지수와 기업의 혁신성, 장기생존가능성, 신뢰성 등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명성평가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경제적,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명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환경보호주의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강조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공통 가치관으로써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사회적 책임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노동, 인권,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은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강(2012)은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공표한 기업 43개를 대상을 표본으로 지속가능경영 도입여부가 기업의 단기수익성, 단기성장성 및 장기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했다. 지속가능경영 도입여부는 단기수익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단기성장성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은 장기기업가치를 나타내는 토빈의 큐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결과에 대한 시사점에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이 주주,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있다.

민재형, 김범석, 하승인(2014)은 ESG등급에 따른 주가수익비율(PER)과 토빈의 q의 변화를 분석하여 ESG등급이 단기적지표인 주가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지표인 토빈의 q와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분석했다. 또한 ESG중 E(환경) 부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기업 지속가능지수가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책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홍성태, 안치용, 이한석(2012)와 상이한 분석이다.

임종옥(2016)은 ESG평가정보 및 경영자의 이익관리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 중 ESG평가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Tobin’s Q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SG평가정보가 ESG 통합부문과 지배구조부문을 제외하고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ESG평가를 잘 받도록 지속가능경영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강(2012)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김윤경(2020)은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가 차기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고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ESG 통합, 환경, 사회는 Tobin’s Q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배구조는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즉,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여부가 기업의 수익성과 비용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최준석 외(2017)에서 나타난 비재무정보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김강(2012)와 임종옥(2016)의 논문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본 문헌의 분석대상인 ESG 평가지표를 사용한 논문은 2011년 1건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3개 논문이 게재되었고 2019년 들어 9개로 급증하였다. (이정기, 이재혁, 2020) 이를 통해서 ESG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ESG통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의 설계**

1) ESG경영과 PER, TQ에 관한 연구 가설

H1 국내 기업의 ESG경영은 기업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1 국내 기업의 ESG경영은 주가수익비율(PER)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2 국내 기업의 ESG경영은 토빈의 큐(TQ)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중 각 E, S, G 부문은 특정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 변수 정의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ESG등급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주가수익비율, 토빈의 큐를 설정했다.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주가수익비율과 토빈의 큐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변수로써 많은 논문에서 통용되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로는 산업더미 변수, 총자산이익률, 기업규모, 자본부채비율을 설정했다. 산업더미변수의 경우 데이터 사용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기업을 산업 별 12종으로 분류했다.

ESG등급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제공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가등급을 사용하며 이는 E, S, G 각각의 등급과 더불어 ESG종합 등급도 포함한다.

주가수익비율과 토빈의 큐를 구하기 위해 ‘네이버 금융’에서 파이썬 Selenium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IFRS 연결재무제표를 크롤링했다. 분기별이 아닌 연간 재무정보만을 수집했다.

주가수익비율은 공시된 정보를 바로 사용했으며, 토빈의 큐(TQ)는 아래의 방법으로 구했다. 우선주 정보는 구할 수 없어 보통주만을 사용했다.

TQ = (보통주 시장가치 + 부채 장부가치) / (자산 장부가치)

보통주 시장가치 = (보통주 기말종가 ) \* (보통주 발행주식수)

보통주 기말종가 = (주가수익비율) \* (주당순이익)

3) 모형 설계

본 연구는 불균형 패널 데이터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패널데이터 선형회귀 분석이란 다수의 기업들이 기간에 걸쳐 관찰되는 경우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에 관측치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불균형 패널데이터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한다. KCGS의 ESG평가 데이터의 경우 약 1000개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기업들이 5년에 걸쳐서 관찰되며, 매년 관찰되는 기업이 일부 달라지기 때문에 불균형 패널데이터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적합하다.